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폐암 걱정성 평가 설명회 열어

보험심사팀에서는 5월 8일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암 걱정성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본원에서 5월 28일 폐암걱정성 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호흡기내과 외 7개과 교수들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될 암 걱정성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암 걱정성 평가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중증 암 질환 증가 추세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1년부터 진료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폐암이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이었으나 정확한 암 진단을 위한 정밀 검사, 항암제 치료의 적절한 시기,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권고되는 동시 병용,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여부 등이 기관 간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대장암, 유방암에 이어 세 번째로 걱정성 평가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심사팀은 앞으로 지속적인 회의를 거쳐 발생될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본원이 폐암 걱정성 평가 1등급을 받는데 주력 할 계획이다.



02 러시아 태평양국제관광박람회 및 의료설명회 참가

동국대학교병원은 고양시 의료관광 협회(협회장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장 채석래) 회원자격으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태평양 국제 관광박람회 (이하 PITE)와 22일 하바로브스크에서 열린 의료설명회에 참여했다.

PITE는 17년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국제 관광 박람회로, 올해는 APEC 개최지였던 극동연방대학교(러시아 섬인 루스키에 위치)에서 확대 개최하여 141개 부스에 9,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한 큰 규모로 열렸다. 또한 하바로브스크에서 열린 의료설명회에서는 현지 여행사 및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동국대학교 병원은 PITE 행사 및 하바로브스크 의료설명회에 직접 참가하여 본원 소개 및 상담을 진행하였다. 국제진료센터는 앞으로도 의료관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본원의 의료상품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03 개인정보보호의 실천

의무기록실에서는 교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의미와 개인정보보호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이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

특히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및 질병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곳으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진료를 목적으로 진료기록부, 진단서, 처방전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열람·제공은 의료법에 우선 적용되지만 그 외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되며 법 위반 시 벌칙조항은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함께 적용된다. 따라서 환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보호는 교직원 '전체'가 '항상' 지키고 실행해야 하는 보안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2011. 09. 30 제정)

제 3 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처벌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04 '식사동 투게더 한마음축제' 의료지원

동국대학교병원은 식사동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개최된 '식사동 투게더 한마음 축제'에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위시티 중앙공원에서 5월 25일 개최된 이번 행사는 식사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간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나눔장터, 체험마당, 문화·예술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5월 따뜻한 햇살이 함께하여 참가한 이들을 더욱 즐겁게 했다.



탈무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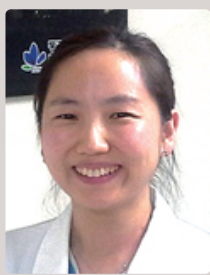
“실패한 일을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이 훨씬 바보스럽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직업을 선택한 것에 후회를 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현재의 직업을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크 인터뷰는 이름이 약간 튀는 인공지능장실 김희동 간호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짧은 인터뷰



인공지능장실
김희동 간호사

- **본인소개?** 올해 나이 34살, 2006년 5월 입사, 우리병원 입사 전에는 세종병원에서 근무했으며, 2004년에 결혼, 현재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두고 있는 김희동입니다.
- **흥미를 느끼는 것?** 음식에 관심이 많으나 잘 만들지는 못함. 4개월 전부터 기타가 너무 좋아 요즘은 손가락에 굳은살 벗기는 재미로 살고 있음.
- **집안 경제권은 어떻게 운영?** 신랑이랑 저랑 각각 관리하는데 웬지 모르게 손해를 보는 느낌일까요?ㅋㅋ
- **제일 소중한 물건?** 신랑이 생일에 사준 기타.
- **끝인사?** 아무래도 부서 특성상 타부서와 교류가 없어 '우물 안에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많은 직원들과 인사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알 리 미

서구보건소 건강강좌

일시 : 6월 5일(수) 10:00 | 장소 : 서구보건소 | 강사 : 한방내과 최동준 교수 | 주제 : 노화와 중풍

2013년 3월 1일 발령 신입간호사 100일 파티

일시 : 6월 5일(수) 16:00 | 장소 : 중강당

